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완도 해양치유프로그램' 인기

코로나19로 '치유' 주목...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516명 참여

오는 24일부터 24일간 명사십리 해수욕장서 여름 프로그램 운영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치유'가 주목을 받으며 완도군에서 국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봄 그리고 힐링 해양치유프로그램'에 총 516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이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는 해변에서 노르딕 워킹, 필라테스, 자이로키네시스, 요가, 명상, 다시마 해수 찜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해양에어로졸과 바람, 태양광 등 해양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호흡기·피부 질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한편 오는 7월 24일부터 24일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그리고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사십리 해양치유 체험 존에서는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등 기

존 기후치유 프로그램에 해변 명상, 파도소리 명상, 니드라 요가, 모래 찜질, 다시마 팩 체험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관광객과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지원팀(061-550-5682)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에서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2018년 시범 운영하여 지금까지 122회를 운영, 총 9,592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5월부터 총 17회 운영하였으며, 청산도와 보길도로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참가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아웃도어 프로그램 체험 후에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꽃을 활용한 꽃차와 등백 모과 음료, 청산도 보리가 첨가된 청산도 보리커피를 시용하고, 꼬시래기, 다시마 등 해조류가 첨가된 해초 떡볶이, 해초 미니 샌드위치 등을 시식했다.

아울러 다시마를 넣은 해수온탕에서 해수 찜을 하며 피로를 푸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 참가자의 만족감과 치유 효과를 더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치유 효과는 74.6%가 스트레스 해소, 다음은 근육통 완화로 조사되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프로그램 참가 전 통증 없음이 20.3%였으나 참

가 후에는 45.8%로 25.5% 통증 없음이 증가했으며, 조금 심한 통증은 25.5%에서 5.1%로 20.4%가 통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해양치유가 스트레스 해소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용산면, 주민 공감 '대화의 장' 열어 29개 마을 순차적 직접 방문

장흥군 용산면(면장 이시영)은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29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공감의 대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주민 공감의 대화의 장은 지역 현안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경로당 시설도 점검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영 용산면장은 29개 마을 41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을 소규모 사업 건의부터 개인의 어려운 생활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마을주민은 "신임 면장이 찾아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시영 용산면장은 "농촌 현실 상 고령인구가 많아 민정운영에서 어르신 복지와 생활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의 문이 넓히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청년들, 강진서 새로운 길 찾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강진캠프' 성료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강진캠프'를 오감통 음악장작소에서 개최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시가 강진군 등 13개 지자체와 함께 서울의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청년창업의 꿈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강진을 선택한 11명의 서울 청년들은 강진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지역자원 조사와 창업 교육, 강진 청년과의 간담회 등의 팍팍한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 청년들은 청자, 귀리 등 강진의 특산품을 활용한 사업 외에도 관광, 영화, 예술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강진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서울 청년들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진을 도시재생사업 및 빈집·빈점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벼 먹노린재 등 병해충 적기방제 총력

초기 방제 실패하면 수량 70% 감소 등 피해

진도군이 최근 발생 밀도가 높은 벼 먹노린재 등 병해충 적기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먹노린재 발생 의심지역과 벼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예찰한 결과 지난해 대비 먹노린재 성충 밀도가 높고 발생 시기도 10일 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읍·면 담당 마을을 편성

해 관내 24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먹노린재 방제를 당부하는 마을 방송, 농업인 적기 방제 안내문 발송, 홍보 전단 배부, 공동방제시범 사업 등을 실시했다.

벼 먹노린재는 논둑과 산기슭 낙엽 밑에서 성충으로 월동한 후 6월 중순부터 모내기가 완료된 논으로 이동해 8월 상순까지 발생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외래품종 벼 퇴출, 해남 농업인들 뭉쳤다"

해남군, 일본계 벼 품종 재배면적 제로화 퇴출 결의대회

해남군은 지난 7일 옥천농협에서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외래품종 벼 퇴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명현관 해남군수, 박흥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시범농가의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다짐의 자리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2025년까지 벼 외래품

종 재배면적 제로화(Zero)를 달성할 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 퇴출 종자주권 수호 전남농업기술원은 '국내육성 우량품종 확대' 선언을 통해 종자산업의 탈 일본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남군 옥천면에 '신 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 생산단지 20ha를 조성해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인 새



봉황, 예찬, 수광, 청품 4종과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 전남 9호 등 총 5개 품종의 재배를 시작했다.

외래품종 퇴출 결의문에서는 외래품종 벼는 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농업인 다짐과 함께 농촌진흥청 및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고품질 쌀 품종 육종개발과 재배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함평천지농 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농 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